

생애로 쓴 기념비

# 아직도 깨끗한 낮은 목소리

〈한울노동문제연구소〉 하종강 소장

박승욱



**하종강** | 1955년 인천 생. 74년 인하대 응용물리학과 입학. 현재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산재추방운동연합 교육센터 소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한겨레21』에 「하종강의 휴먼포럼」, 『작은책』에 「하종강의 노동시대」 연재중. 저서로는 전태일문학상을 받은 『항상 가슴 떨리는 처음입니다』를 비롯 『노동자는 꽃말려』 등이 있음.

● 우리 사회는 아직도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지극히 천박합니다.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너무나 당연한 노동조합 활동과 파업을 마치 사회에 해로운 범죄인 양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도 뭔가 못 나고 열등한 사람들이나 하는 천한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은연중 완고한 선입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는 노동자들조차 먹고살기 위해서 치사하지만 노동을 한다는 자격지심에 찌들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노동자들에게 하는 교육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분단이 권력과 자본에 의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기형적으로 탄압하는 데 얼마나 악용됐는지 그런 내용을 이해시키는 교육입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집단 이기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왜 옳지 않은지, 노동자가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왜 범죄 행위가 아닌지,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려는 욕구를 우리 사회가 정당하게 인정하고 제도로써 보장한 게 노동조합인데 이것을 왜 마치 우리 경제를 발목잡고 있는 훼방꾼으로 매도하고 있는지 그 거꾸로 된 왜곡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열된 지식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도록 해야 하니까요. 수십 년을 깜박 속아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심장에서 느끼도록 해야 하고, 그래야 신념과 행동으로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받는 노동자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교육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솔직히 교육을 하다가 몇 번씩 목이 메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노동자들의 처지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이지요. 두 시간씩이나 강의하고 나서 “자 그러면 제 강의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하고 막상 생각해 보면 두 시간이 허무할 정도로 결론은 간단합니다. 노동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노동조합 해볼 만한 것이다, 노동법은 아주 당당한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랬다. 그는 지금도 분단이 강요한 천박한 우리 사회의 편견에 맞서 온몸으로 그 편견을 뒤집어엎는 일을 하며 산다. 교육을 요청한 한국통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바보라고 벌컥 화를 내고는 눈물을 보이면서, 1980년 광주학살의 진상을 폭로한다고 종로 5가 기독교

회관 옥상에서 몸을 날려 아스팔트에 떨어진 그의 친구 김의기에 대한 부채감을 고스란히 오늘의 과제로 이어가면서 산다. 대담을 하는 도중에도 하종강 소장에게 온 전화 내용은 언제 교육을 해줄 수 있겠느냐는 노동조합의 시간 약속 전화였다. 그의 이름 아래 붙은 소장이란 직함은 물론 그가 이경우 변호사와 함께 만든 <한울노동문제연구소>에서 그에게 준, 별로 빛나지 않지만 노동자들과 함께 한 이십 몇 년의 세월이 그에게 준, 낮은 목소리의 노동자 옆 '자리'였다.

과로사나 산재 전문 노동법률상담소인 <한울노동문제상담소>는 이경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한울과 함께 사무실을 쓰고 있다. 1985년 이경우 변호사는 남부지원 앞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노동상담실을 열었다. 이때 노동상담소의 실무자는 코리아스파이서 해고자 박남수 씨였다. 가방 끈 짧은 박남수 씨는 독학으로 끈질긴 법정투쟁 끝에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소송에서 이겼고(박남수 씨의 투쟁은 1980년대 노동운동의 전설 가운데 하나이다!) 마침내 회사로 복귀하게 된다. 1988년 하종강은 박남수 씨의 소개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경우 변호사와 인연을 맺게 됐다. 그리고 그 날 이후 노동상담소 실무자 일은 그의 천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994년부터는 <한울노동문제연구소>로 발돋움하면서 노사 문제에 정통한 공인노무사 2명과 함께 일을 하게 됐고, 오늘날까지 과로사 사건 등 숱한 노동문제 소송을 이겨 적어도 노동계에서는 한울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하종강 하면 사람들은 곧바로 노동 교육을 떠올린다. 그만큼 그는 정말 노동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제는 교육만이 아니라 한때 문학 청년이었다는 것을 유감 없이 증명이라도 하듯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글을 여기저기 발표해 필명을 날리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그가 머리를 굴려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밀며 살아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이고, 교육이든 글이든 차가운 머리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빛내이기 때문에 가능한, 뒤늦은 열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는 하루에 평균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정도에서 노동자들에게 교육을 한다. 한 달에 30번 아래로 교육을 나간 경우는 그의 기억에 거의 없다. 주변 사람도 권하고, 집에서도 좀 줄이라고 요구하고, 그도 좀 줄이려고 하지만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는 매일 하는 일이지만 노동자들은 대의원 대회라거나 조합원 총회 같은 때 일 년에 한 번 모처럼 그를 부르는 게 보통인데, 그것을 알면서 거절할 만큼 냉정하게 주관할 틈기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날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면서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했던 것일까. 왜 사람들은 일신의 안녕을 내팽개치면서까지 낯선 땅인 만주로 넘어가 독립운동을 했던 것일까. 그 가운데 한 사람, 하종강은 1970년대 그 야만의 유신시대 때 무슨 동기로 학생운동을 하게 됐고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됐을까.

하종강은 말한다. 정의감이라고. <정의구현사제단>에서 만든 민청학련 재판 방청 기록을 보면서 학생들의 진실이 전혀 보도도 되지 않고 알려지지도 않는 비겁한 현실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바로 이런 사람이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어느 노동자의 말에 충격을 받고, 그것이 삶의 지표가 됐다고.

● 언젠가 내가 경찰에 잡혀가는 과정에서 안경이 깨졌습니다. 나는 안경이 없으면 장님이기 때문에 안경을 달라고 요구하다 얻어터지기만 했죠. 그때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에게 안경을 지급해라, 니들이 연행하다가 깨뜨렸으니까 당연히 니들이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하다 결국 그도 솔하게 맞기만 했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남을 돕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어느 평범한 노동자가 말한, 어찌보면 비범한 해석을 들으면서 그는 그의 어머니가 수백 번도 더 넘게 그에게 한 삼치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의 어머니는 삼치구이를 밥상에 올려놓을 때면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셨다. 삼치는 다른 큰 물고기가 자기를 먹지 못하도록 가시가 많은 거란다. “그렇지만 가시가 많다는 것은 먹은 다음에 알게 되잖아요”라고 어린 하종강이 물으면 “그렇지, 자기는 먹이지만 다른 친구들은 안 먹히는 거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친구를 살리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불의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그 불의로 말미암아 슬한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지난 날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의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기 자신과 수많은 타인까지도 고통에서 해방되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진정한 보시행, 착한 사마리아인의 행위였다. 그리고 물론 그런 결단의 행위는 사실 자신을 희생하는 삼

치의 가시와 똑같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1970년대 그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겠다고 낮은 곳으로 간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종강이란 이름 석자가 들어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다.

● 1974년 저는 인하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일류 대학에 못 갈 바에야 차라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으로 가서 집하고 학교만 왔다갔다 2년만 다니고 삼촌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자는 거의 자포자기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신 초기였던 1974년의 시대상은 나를 곧바로 삶과 사회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인민의 눈물젖은 빵과 오페라 가수의 노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묻는 톨스토이의 예술론 몇 쪽을 읽으면서 그동안 문학 청년으로서 가지고 있던 어설픈 예술론은 단숨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대학에 가자마자 학보사에 들어갔는데 마침 학보사 편집장을 하다 제적된 71학번 선배 한 분의 말이 귀에 쫄쫄 들어오더군요.

“너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85%의 사람들에게 빛을 지고 있다. 남은 평생 그 빛을 झा아야 한다.”

“한국의 대학생은 세 가지다. 부모가 보내줘서 뭐가뭔지 모르고 그냥 대학 다니는 쫄쫄렁렁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소수의 학생들은 대학 다니는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인생에 유익한 것을 많이 얻으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써클도 열심히 하고 인간관계 폭도 열심히 넓히고 한다. 그러나 더 소수의 학생들은 대학에 있는 동안 대학과 이 사회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 선배의 말이 제 인생의 선택을 달리 만드는 이정표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민청학련 사건이 터지고 친한 고등학교 선배들이 간첩이라고 신문에 대서특필되어 사진이 나고 그랬습니다. 선량하기 그지없는 그 선배들을 간첩이라고 잡아넣는 권력이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운동의 길로 한달음에 달려가게 됐지요.

● 제 고향은 인천입니다. 저희 아버님 고향은 평양인데 평양고보를 나와 연희전문

을 다니시다가 학병에 끌려가셨습니다. 다행히 살아 남아 해방을 맞이했고 평양으로 돌아와서는 잠시 교편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님은 북한 체제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1·4후퇴 때 삼촌과 달랑 둘이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남한에 내려와서 얼마 있다 아버님은 인천에서 다시 교편을 잡게 되셨고 그게 평생의 천직이 된 거지요.

어머님과는 중매로 만났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은행원이었는데 전쟁 때문에 대학은 못 갔지만 평양의 서문고녀를 나온 인텔리 여성인데다 또 같은 고향 사람이었으니까 대동강이 얼면 스케이트를 타고 통학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급속히 쉽게 친해지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다 월남민이었기 때문에 제가 학생운동한다고 했을 때 너희들은 모른다, 우리 두 번의 전쟁을 치루면서 살아 남았다고 말씀하시면 참 그에 대해 얘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때 비로소 어머님이 제게 고백처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40년 넘게 남편에게도 하지 않았던 얘기였습니다. 어머님은 해방 후 은행에 다니면서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전평 활동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은 어느 날 깨어보면 한강변에 시체로 떠오르기도 하고, 죽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모두 열심히 활동했는데 6·25전쟁 때 보도연맹 들었다 다 죽고 어머님 혼자 운 좋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다들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말 잘하고 훨씬 더 잘 생긴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 제가 1955년에 태어났는데 1남 2녀의 맏입니다. 저는 그럭저럭 유복하게 자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적산가옥에서 그 시대 교사가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월급쟁이 생활 수준은 됐으니까요. 그런데 아버님보다는 어머님의 사로서 평양의 유지였던 하씨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을 강하게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게 네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까요. 한 마디로 의사가 되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공부를 좀 세게 시켰지요. 유치원 가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던 때인데 시험 봐서 들어가는 곳으로 갔으니까요. 물론 초등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갔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 그 당시

세칭 일류라고 하는 인천중학교, 제물포고등학교로 갔습니다.

제고에 가서 문예반 활동을 하며 참 좋은 선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선배들이 직접 매년 후배들 중에서 글도 잘 쓰고 똑똑한 애들로 4~5 명을 뽑아 운영하던 문예반이었는데, 좀 건방진 문예반 활동이었지만 제 인생에 끼친 영향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황금시대였다고나 할까요. 그때 우리는 매일 저녁 전봉건의 『시의 미학』이나 함석헌의 『씨울의 소리』 같은 책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그랬습니다. 방학이 되면 다른 학생들은 다들 어디 놀러가고 그랬지만, 우리는 학생들이 지난 학기 방학 숙제로 낸 원고지들을 수레로 실어 날라 놓고 그 중에서 교지에 실을 것들을 뽑고 그랬지요. 또 대학생이나 재수생이 된 선배들이 찾아와서 함께 토론하다가 저녁이 되면 시장 왕대포집에 교복 입을 채로 데리고 가서는 술 먹으며 열변을 토하는 그런 고담준론의 시간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 활동이 그렇게 멋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으니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게 없다는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혼자 출세해서 가문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가치관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게 됐지요. 그러다 보니 고 2 때부터는 다분히 우월 의식 비슷한 걸 갖고 있으면서 학교 공부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고전만 열심히, 참 책을 많이도 읽었지요.

어릴 때 제 우상은 미국에 가 있는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은 월남해서 학교도 못하고 목포의 냉면집에서 고생하고 있다가 아버님이 결혼하자 형수가 된 저희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 공부시켜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고 말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즉시 당시 결혼 예물로는 최고로 치던 제니스 라디오와 금반지를 팔아 삼촌을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시켰습니다. 삼촌은 정말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으로 가서 공인회계사가 되어 미국 백인 사회에서 금융인으로 성공한 2명의 동양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됐습니다. 의사로서 나도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막연한 성취동기의 선례가 바로 삼촌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제 인생관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학교를 손꼽히는 성적으로 들어갔고, 고등학교도 그런대로 상위로 들어가 당시 제고에서 서

울대에 백여 명씩 들어갔으니까 서울대는 가겠거니 생각했는데, 성적이 곧두박질치니까 작은 아버지가 열세 살 이전에 미국으로 데려가야 하는 건데 하며 후회하시더라구요.

대학갈 때는 그래서 가족들하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인문계는 4년, 이공계는 2년을 공부해야 미국 유학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2년의 인생은 없는 셈치고 있다 미국으로 간다는 그런 계획이었지요.

● 74년 가을부터 민청학련으로 구속된 학생 석방과 유신 철폐를 내걸고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학보사를 중심으로 우리도 학생회장을 여관에 데려가 학생회가 총대를 메라, 우리가 나머지는 다 한다고 하며 밤새 설득을 했습니다. 학생회장이 일곱 번인가 생각을 바꾸다가 마지막에 하겠다고 해서 시위에 나선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얘기를 어디 클에도 썼지만 내 인생의 진로를 놓고 몇 일을 고민하고 있을 때, 어머니 밥상머리에서 “세상을 바르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항상 근본이 중요하다”고 말해 온 어머니로서 네 오빠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아무 말 않겠다”고 여동생에게 말하는 방식을 통해 제게 한 말씀을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며칠 후 저는 몇몇 선배들과 여관에서 밤을 꼬박 새며 등사한 유인물을 라면 상자에 넣고 학교로 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가 끝나고 일곱 명인가 주도자들이 여관에서 조사를 받다 경찰서로 갈 때 계장이 제 손에 묻어 있는 등사 잉크를 보더니, “야, 그건 좀 지우고 가지” 그러더라고요. 당시 1학년은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이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구나 하는 생각에 오히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드디어 나도 구속이 되는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저는 사실 징역복이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무수히 경찰서를 들락거리긴 했는데 한 번도 구속된 적은 없었어요. 맨 처음 경찰서로 잡혀간 그때도 한 3일 조사 받다 그냥 나왔지요. 그때는 경찰이 “너희들 주장이 옳은 것은 우리도 알지만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학생처장이 와서 보증서고 우리를 데려오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대부분 석방되고 『동아일보』를 비롯해 기자들의 자유 언론운동이 일어나면서 75년 봄이 되자 다시 유신 철폐를 요구하는 대학가의 시위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구속됩니다. 그때 나는 솔직히 심각하게 고민이 됐습니다. 학생운동을 계속하다 구속을 당할 것이냐, 이걸 뭐 틀림없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아니면 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느냐의 갈림길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서 빨리 군대가라고 재촉했고요. 고민하다 긴급초치 9호가 나자 바로 군대를 지원해 논산으로 갔습니다. 명백한 도피였지요.

언제든 미국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는 웬만큼 할 수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1군사령부 문서취급소에서 미8군 전령으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참 많은 경험과 생각의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구속되지 않고 도피했다는 중압감이 더욱 나 자신을 채찍질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절대 군사 문화에 물들지 않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군대 생활 동안 한 마디도 욕을 하지 않았습다. 덕분에 쫓겨간다는 인기가 아주 좋았지만, 완전 별종 취급을 받았지요.

● 군대 있으면서 절실히 느낀 것이 단순한 의식만 가지고 학생운동을 해서는 지속할 수 없고, 제대로 공부를 해서 확실한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78년 5월 제대하고 학교에 다시 오니까 독서회 만들어 학생운동하다 구속된 안영근, 박한왕 같은 77학번 친구들이 있더군요. 자연스럽게 이런 후배들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활동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10·26 뒤에는 후배들과 함께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제가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후배들이 하 선배는 이미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공개 조직을 맡아야 된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때는 언더에서 활동하던 학생들은 공개 조직을 잘 맡지 않았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정치 감각이나 판단이 미숙했고, 정치는 3류 인간들이나 하는 일로 생각하는 순수한 열정만 강했지요. 학민추는 나중에 학회 조직들과 합쳐져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로 발전했다가 학생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총대의원회 의장을 맡아 5·17 날 때까지 정신 없이 뛰어 다녔습니다.

80년 5월 민주화의 봄 시위 기간 내내 인하대는 동대 도서관을 배정받아 거기서 밤을 새웠습니다. 5월 15일 남대문에서 대규모 가두 시위를 한 뒤에 해산되고 나서, 우리는 밤에 동대로 모여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든지 아니면 처절하게 깨지든지 둘 중의 하나다, 잠시 몸을 숨기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 날 밤 계엄확대 뉴스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길로 집에서 나와 그 날은 동네 여관에서 자고 다음날 확인해보니 다 잡혀갔더라고요.

어디를 갈까 하며 양귀자 씨의 소설 무대인 원미동을 해마다 우연히 서점에 들어갔는데 주인 아저씨가 마침 석유 가게의 배달부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무조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잡힐 때까지 두 달 반 동안 석유배달부로 잘 있었지요.

● 나중에 어떻게 알았는지 형사가 들이닥쳤습니다. 내 방을 두들기면서 “하종강이 그만 나오지” 그러더라고요. 뛰어내려 도망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도피 생활이 피곤하기도 해서 그냥 잡혀갔습니다. 이거 어디다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때 제 친척 한 분이 육사 출신이었는데 보안사 인천지사인 송학사 사장에게 전화를 해 저는 구속되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인천경찰서 담당형사가 “야 임마 년 구속이야 구속. 그런데 사회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놈이 이런 수단으로 빠져나가면 되겠어,” 막 그러더군요.

학교 징계는 근신인가 뺏인가로 끝나고 82년 가을 졸업할 때까지 몇 개 서클을 맡아 관리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학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만 터지면 저는 경찰서로 가야 했으니까요. 후배들은 집회를 하건 유인물을 뿌리건 나 모르게 해야만 했습니다.

고문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 것도 그때였습니다. 대자보 사건이니, 학내 페인트 사건이니, 유인물 사건이니 계속 미제로 남아 있다가 81년 5월 인천 제일장로교회 연합시위 때 인하대 학생 몇몇이 붙잡혔는데 그 가운데 한 친구가 고문에 못 이겨 내 이름을 언급한 게 화근이 돼 말로만 듣던 통닭구이, 비너꽃기 등 사흘 동안 온갖 고문을 다 당해봤지요. 고문당할 때의 그 심정은 정말 진저리가 나고 참담하기가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때 나를 고문하던 그 계장의 이름을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 결혼은 졸업하기 전인 82년에 했습니다. 사실 아내는 저보다 1년 위인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만났지요. 그때 아내는 단국대에서 특수교육과를 4년 장학생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서른 되기 전인 스물아홉 봄에 하고 싶다고 아내가 미리 결혼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소모임에서 1년 계획을 얘기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 결혼해야 되겠군요”라고 아무지게 말하더군요. 사실 결혼식장 빌릴 돈도 없고 그래서 인하대 세미나실을 무료로 빌려서 했습니다. 인하대에서는 최초의 교내 결혼식이었을 겁니다. 영선계에서 일하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이랑 친했는데 식당 아줌마들이 기꺼이 국수 다 말아주시고 그랬지요. 인천경찰서 대공 형사들도 단체로 미니버스 타고 왔었습니다.

신혼살림은 아내가 이미 전세로 살고 있던 13평 주공아파트에 차렸습니다. 저는 그냥 책상하고 책 몇 권 가지고 들어간 거지요. 지금까지도 아내에게는 정말 너무 고맙다는 생각뿐입니다. 74년 처음 데모를 하기 전에 고민하는 저에게 아내가 편지를 보내더군요. 앞으로 경제적으로 무능한 인간이 될지도 모를까봐 하는 고민이라면 할 필요 없다, 나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교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다, 당신이 완벽하게 무능력한 인간이 되어도 최소한 우리 사회의 교사 생활 수준은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이라면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이런 배려 덕분이었던 셈입니다.

● 졸업하기 전에 마침 인천 도시산업선교회에서 진행하는 노동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새로 총무로 부임한 김동완 목사가 <노동자성서연구반>이란 모임을 만들었는데 저는 거기 참여해서 녹음을 하고 그걸 그대로 녹취해서 책으로 엮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6개월 걸려서 나중에 『일하는 사람들의 성서』란 제목으로 책이 나왔지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첫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공부하는데, 이

탕자의 비유를 읽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각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자란 저는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맨발로 뛰어나가 안아주는 아버지의 넓은 사랑, 모든 것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바다와 같은 사랑, 이것이 해답이거든요. 그런데 한 여성노동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눈물로 나무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깨닫는 순간, 물질적인 가난이건 정신적인 가난이건 고통에 처한 사람이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하는 그 순간이 가장 클라이맥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점을 그 여성노동자는 느끼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 왔다는 죄책감과 자괴감이 저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거의 매번 그런 충격을 느끼는 모임이었습니다. 이런 모임이 사실은 진짜 민중신학의 산실이었습니다. 서남동 목사님도 저희 프로그램에 세 번인가 함께 참여하신 적이 있지요. 저는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아무런 직함도 없이 도시산업선교회의 자원봉사자로 파트타임 실무자가 되었습니다.

● 당시 필리핀 등지에서 나온 노동자 교육용 자료들을 김동완 목사가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교육 자료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것이 〈일꾼 노동자료연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수동 산신 지하실에 방 한 칸을 만들어 도배하고 책상 갖다놓고 혼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팀을 만들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채우는 기획팀, 완성반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책으로 꾸미는 편집팀, 각종 삽화를 집어넣는 삽화팀, 신문 자료가 교육에는 대단히 효과가 좋아서 만든 신문스크랩팀, 이렇게 만든 교육 자료를 가지고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던 훈련팀 등 일곱인가 하는 팀이 만들어졌지요.

그때 기획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노동자들의 정서와 요구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정서와 욕구를 정확히 이해한 바탕 위에서 교

육을 해야지 노동조합이 중요하다고 백 날 얘기해 봐야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예쁜 여자 만나 결혼해 애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노동조합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작업이 노동자 수기를 단계별로 분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비바람 속에 피어난 꽃』이니 『서울로 간 허수아비』니 노동자 수기를 있는 대로 두 권씩 사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칼로 잘라 주제별, 단계별로 대학 노트에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두고 온 고향에 대한 표현이라도 어떤 노동자는 고향 언덕에 피어오르는 아득한 안개를 떠올리며 목가적 정서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떤 노동자는 피폐한 농촌 현실과 한국 경제의 모순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작업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노동자 정서에 맞게 교육을 잘 한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도 사실 이때의 훈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꾼노동자료연구실〉은 그 당시 꽤 활발하게 사업을 벌이며 교육 자료도 많이 발간했고, 저는 실제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에서 신철영 선생이 〈희망의 전화〉라는 상담소를 개설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천에서는 제가 맡아서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도시산업선교회 총무로 새 사람이 오고 자료실이 동암 역쪽 독립 건물 2층을 마련해 옮기면서 사업규모가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더군요. 신임 총무와 내부적으로 갈등도 있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게 대우자동차 파업이 끝났을 때니까 85년 4월인가 5월인가 그럴 겁니다. 대우자동차 파업 실태 테이프가 몇 개 있었는데, 그것을 한 개로 편집해 수백 개 복사본 만드는 작업을 제가 〈일꾼노동자료연구실〉에서 했으니까요.

● 두 달 정도는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쉬자고 다짐하고 있었는데, 인천에서 노동상담소를 하고 있던 동일방직의 안순애 씨 소개로 황영환 선배가 저에게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연락을 해 왔습니다. 노동문제 상담과 교육 출판 등을 하는 〈기독교 산업개발원〉의 실무자 자리였습니다. 조승혁 목사가 만든 단체였는데 정암사라는 출판사를 갖고 있었고, 저는 그 출판사의 편집부장 직함을 갖고 일하는 것이었습니

다. 월급이 3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도시산업선교회에서는 활동비로 10만원 받고 있었으니까, 제 기준으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거기서 노동상담에 대해서는 황영환 선배에게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3박4일로 연수원을 빌려 전국 각 지역에 서 노동상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받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때 양승조 선배가 저보고 인노련을 같이 하자고 사무국장직을 제의해 왔습니다. <일꾼노동자료연구실>을 하면서 인사련 노동분과 위원장도 맡고 있었으니까 적합하다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조직운동을 잘하려면 생각이 다른 사람은 배제해야 하고 원칙에 어긋나면 잘라버려야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해보고 또 당해보니까 그런 것은 제 삶과 맞지 않다고 생각되더군요. 그래서 조직운동은 포기하기로 맘먹고 개인적으로 노동운동에 기여할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산업개발원에서는 운수노동자들을 상대로 많이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운수노동조합 이게 솔직히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마 당시 기존 집행부를 불신하고 새 집행부를 세우는 노하우는 우리가 전국에서 최고였을 겁니다. 상담소에 전 집행부가 와 있고, 지하다방에는 이 집행부를 불신하는 현 집행부가 와 있고, 서로 모르게 아래 위층을 뛰어다니며 상담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위원장 선거하는데 눈발 팔아서 하고 그러니, 집행부를 교체해도 민주집행부가 되는 경우는 그 당시 반도 안 됐다고 기억됩니다.

조목사님은 직원들 월급이 밀리면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 임금을 지불하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조목사님의 노사화합주의랄까 이런 노선이 세계는 점차 불편해지더군요. 결국 87년 말 황영환 선배가 많이 만류했지만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박남수 형한테 붙잡혀 이경우 변호사 사무실에 발을 디디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인터뷰 대상이 된 것은 노동상담이나 교육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일 텐데,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까닭은 특별한 신념이나 세계관에 입각한 전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서라고 겸손하게 설명했다. 우선 첫 번째로

그의 아내가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경우 변호사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라고 군말 없이 지원해 주는 사람이었다.

그의 '팔불출' 같은 아내 자랑에 대해서는 글쓴이가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두 번째 설명에 대해서는 글쓴이의 경험에 비춰 진실임을 말할 수 있다. 1987년 11월 개소식을 가진 구로공단의 <전태일노동상담소>에 이변호사는 표시 안 나게 오랫동안 재정 지원을 했음을 글쓴이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병법에서 말하는 병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사회운동은 튼튼한 후원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한다. 맞는 말이다. 아마 하종강이란 개인에게도 그 말은 진실일 것이다. 그러나 후원자란 말은 어쩐지 역사의 주역이 아닌 조역을 연상시키고, 민주화운동을 소수의 운동으로 축소시키는 느낌을 준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삶의 주인이자 역사의 주인이며 단지 역할만을 다르게 분담하고 있을 뿐인데 말이다. 그러므로 후원자란 말은 걸맞지 않은 용어이다. 사회운동은 후원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종강의 아내나 이경우 변호사처럼 수많은 '주체적 참여자'를 필요로 한다.

요즘은 그는 자신에게 교육을 상당히 잘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말이 있다. 당신도 한 가지 일을 20년만 해봐라, 이만큼 못하면 그건 바보다, 라고. 그만큼 이십 년이란 세월의 수레바퀴는 그를 일정한 경지로 이끈 것처럼 보인다. 그는 마음을 비워야 교육이 잘 된다고 했다. 마음을 비우고 자기 나름의 성찰에 근거해 진실이 전달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교육을 잘하고 싶어하는 후배들에게 그는 교육 잘했다고 평가받고 싶어하는 욕심을 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어떻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지 간절함만 가지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겠는가.

그가 94년 전태일문학상을 받을 때 심사위원들은 그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소설을 써보라고 권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달하고 교감을 느끼는 일이 소설 쓰는 일보다도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할 일이 없어지면 소설을 쓰겠다는 그의 말은 문학을 모독하고도 남는 발언이지만 그렇게 문학을 모독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오늘날 문학뿐만 아니라 갈수록 부박해져 가기만 하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화 현상에 대해 성찰하는 사람이라면, 사람 사이의 인간 관계나 그 인간 관계를 토대로 한 사회운동에 대해서까지 진지한 성찰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종강의 솔직한

생애는 오히려 현재를 모독하고 있는 문학에 대한 경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하종강의 민주화운동 개인사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물론 민주화운동 또한 현재진행형이다. 민주화운동을 과거의 역사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종강은 그렇지 않다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교육을 하고 있다.

●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많은 사람들이 이념에 대해 회의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민주화운동을 접을 때 솔직히 지도 많이 흔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그때의 동요는 제가 세계관이라고 견지했던 제 자신의 신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참으로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때 얻은 결론은 제 경우에는 그래도 휴머니즘은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그럴듯한 용어로 폼 나게 정리하기 이전에,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뀌어도 노동조합 활동하다 해고되고,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제가 밤새워 서류 몇 장 만들면 이런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수준의 보람과 만족감,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일이 제 일이었다는 것, 그것이 사실 제 구원의 끈이었습니다.

한 후배가 묻더군요. 진보를 믿냐고요. 전 믿는다고 했습니다. ■